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 섬기는 생활
- 주는 생활
-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각 부서의 활성화 방안 성숙을 위한 다짐들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라는 올해의 표어를 따라 각 위원회는 더욱 성숙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였다.

<예배위원회>

가장 중요하고(The most important), 가장 긴급할 뿐 아니라(The most urgent), 가장 영광스러운(The most glorious) 예배를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방법으로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미세한 부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기로 했다. 안내위원과 헌금위원, 음향관리위원 및 차량봉사부원들의 사전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예배를 위한 준비와 점검에 좀 더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찬양위원회>

6개 찬양대 뿐 아니라 교회학교 찬양대의 지휘자 및 반주자, 그리고 찬양팀 등 찬양을 맡은 모든 이들이 영적, 음악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고, 각종 세미나에 관한 정보를 주어 참석을 권장하도록 한다. 찬양에 대한 이론적 지식, 찬양대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각 찬양대의 양적 부흥을 위해 대원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교제 시간들을 확보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

올해 가장 큰 계획은 5월 경에 경로대학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복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 교회학교는 ‘성숙’을 주제로 하여 여러 가지 실천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별히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사 재교육의 기회를 갖고, 교사전체 심야기도회를 통해 영성훈련도 할 예정이다.

심방 및 학생관리의 실효성을 살피 반편성 등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초청집회 형식으로 학령과 연령에 따른 전도에 힘쓰기로 하였다.

중등부의 경우, 반편성을 학년과 성별에 구별없이 지역별로 하고 담임도 가능한 한 그 지역 거주자를 선정하여 심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새가족부에서는 새가족들의 100% 교회정착을 올해 목표로 삼았다. 새가족들의 교회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며, 교사 1인당 3명 내외의 새가족 책임 양육관리를 실시하여 3개월 간의 ‘양육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매월 마지막 주 찬양예배 시에 갖는 새가족환영회와 분기마다 3개월 간의 등록자들을 모두 초청하여 가지는 ‘새가족 부흥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선교위원회>

파송 선교사와 그들의 사역에 대해 성도들이 좀더 가깝게 접하고 실제적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선교 정보를 체계화 할 것이다. 특별히

우리교회와 연관이 있는 모든 선교지로부터 모이는 자료들을 부속실에서 일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권별로 목회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함으로써 자국복음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김치신학세미나도 해를 거듭하는 만큼 성숙된 모습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현재 5개국에 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후원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교회 창립 5주년 기념일에 박종상 교역사를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파송할 계획이다.

<전도위원회>

병원과 군부대 등 특수전도를 위한 모든 문서와 전도 자료들을 개발하는 한편 관리를 좀 더 체계화하고,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다락방 배가 목표와 비전2000운동을 연계시켜 전도에 힘쓰고 태신자관리를 연중에도 계속할 계획이다. 70인전도단 활동을 강화하고 심야전도단, 병원전도단 등 특수전도활동도 좀 더 활발히 전개해 갈 예정이다. 찬양전도단을 새로이 조직하여 7월 놓어준 하계봉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구제위원회>

빈약한 자에 대한 구제를 성도의 일상에서 체현할 수 있도록 고난주간과 성탄절에는 전교인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등 온 교회가 사랑과 봉사의 실천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내외 구제 활동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지구촌 곳곳에 소외되고 빈약한 자들에 관하여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또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다.

이번주 중 · 고등부 겨울수련회 시작으로 막 오르는 겨울 계절학교

방학을 이용하여 집중적인 신앙훈련을 하는 계절학교가 이번 주 중 · 고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25일(목)부터 2박 3일간 양수리수양관에서 “성숙한 기독교학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중 · 고등부의 수련회의 강사는 이종윤 목사, 박귀환 목사, 김명현 목사이다.

중등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사복음서를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저녁부흥회에서 깨달은 말씀을 다음날 오전 활동극과 토론을 통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와 학생들이 합심하여 매주 금요일에 기도회를 가지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온 고등부 역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성훈련에 프로그

램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 달에 계절학교를 갖는 다른 부서들도 준비에 여념이 없다 대학부의 경우, 수련회 및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한 철야기도회를 매주 금요일에 갖고 있으며 2월에 있을 수련회를 앞두고 이번 주에는 임원과 조장들이 각각 1박 2일씩의 리더 훈련을 받게 된다.

교회학교의 겨울수련회 및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는 주일에 가지는 정규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 평소보다 여유있는 시간과 공간이 허락되는 계절학교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전문화된 준비로써 그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성숙하며 천국시민으로써의 삶에 새로운 헌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모두의 관심과 사랑, 기도가 요구된다.

창세기 강해



요셉의 유년기

(37장 3 - 4절)

이종운 목사

창세기 37장 - 50장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2절).

요셉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부모와 성장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약전’이라는 말은 어떤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연구하여 말했다는 것인데 이 말은 창세기에 11번이 나옵니다. 야곱의 약전을 언급하면서 예서와 대조를 시키기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계보는 권세와 부를 누렸던 에돔 족속에 초점이 있지 않고 경건한 삶으로 일관한 소년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년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을 구원한 요셉의 이야기는 17세 소년이었던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I.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본 소년 요셉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맏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라헬 외에도 레아와 다른 두 여종이 있었지만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하란의 우물가에서 라헬을 보는 순간 첫 눈에 반하여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14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일했습니다(창29:20).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얻은 요셉은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열한번째 아들인 야곱은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행길은 평화로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이사하게 된 배후에는 외할아버지인 라반과 아버지 야곱의 갈등이 있었고 백부 예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나온 일, 가족이 나누어 밤에 이동해야만 했던 일, 압복 강가에서 아버지가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다 천사와 씨름하여 환도뼈가 부러진 일 등이 소년 요셉의 뇌리에 잊혀질 수 없는 기억으로 자리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험한 여정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눈으로 보았고, 아버지로부터 직접 체험담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들은 경건치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거친 행동을 보았습니다. 자기 누이 디나를 욕보인 세겔 사람들을 형들이 살육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34:30). 야곱은 그러한 사건이 있는 후 가족을 즉시 벨엘로 옮겼는데 그 당시 요셉의 나이는 17세였

습니다. 벨엘에서 야곱은 자신이 보았던 사닥다리 환상을 요셉에게 말했다는 것이고 요셉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요셉은 조모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와, 모친 라헬, 그리고 조부인 이삭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어린 요셉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으며 요셉의 생애에 전환점이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그 사람의 인격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나라와 교회의 미래 지도자들의 성품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인도하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도 조성하십니다.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함입니다.

II. 날 때부터 질투의 대상이었던 요셉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요셉을 질투한 나머지 노예로 팔게 됩니다(37:5).

야곱의 맏아들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여 장자권을 상실하고 맏입니다. 요셉을 상속자로 삼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긴 소매에 꼬리가 달린 채색옷은 당시 일하는 자들의 의상과 구분된 것입니다. 채색옷을 입힌 것만 보아도 야곱은 이미 요셉을 다스리는 자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들의 비행을 아버지께 보고했습니다(2절). 그것은 허의가 아니었고 늙은 아버지께 마땅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이미 상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요4:5). 요셉을 향한 야곱의 정당한 애정에도 형들은 질투심이 생겼고, 미움과 시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4절).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바른 길만을 걸었습니다.

이같은 일들은 오늘날도 가정, 사회, 국가 어느 곳에서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III. 이유없이 미움을 받았으나 승리한 요셉

우리 주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자로 말과 행동에서 항상 아름답고, 즐겁고, 사랑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롭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충동질을 당한 무리의 항의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에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천지가 진동하였습니다. 진리가 매장되는 것같은 그 모습을 하늘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도 타협하거나 항거하지 않으시고 털 깎는 자 앞의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도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에게도 핍박과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 영광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마 5:10).

✦ 순례자 컬럼 ✦

“기회를 선용하자”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지혜요 힘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애절한 탄식을 하는 것보다 주어진 때에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고 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축복의 기회를 선용해야겠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사치에 취해서는 안되며 명성이 높아간다고 교만에 취해서도 안되고 정권을 잡아도 권력에 취해서는 안될 것이다. 축복에 취하다보면 실패를 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봉사할 기회도 선용해야겠다. 남의 약점을 보았을 때는 그를 헐기 전에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같은 약점을 가진 인간의 할 일이다.

용서할 기회를 선용해야 한다. 원수에게 저주를 퍼붓기 전에 그 때를 용서의 기회로 만들 수 없겠는가?

“주여, 기회를 잃는 것은 영원을 잃는 것인가 하옵니다.”

■ 성숙한 청지기

사랑의 향기 솔솔 피어나는 마음씨 · 말씨 · 맵씨 · 솜씨

■...이 글은 청지기수련회 중 지난 9일(화)에 가진 교구일꾼 수련회에서 임진태 목사의 강의 중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이다.■

청년 벨(Bell)은 한 여인을 사랑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그 여인과 어떻게 하면 좀더 잘 이야기 할 수 있을가를 날마다 고민하던 그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기를 발명하게 되었다. 사랑과 관심은 이와 같은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게 한다. 청지기인 우리가 맡은 일과 사람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쏟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일에 날마다 새로운 힘이 샘솟을 것이다.

* *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대해야 할 우리가 청지기로서 갖추어야 할 네가지가 있다.

첫째, 어머니 같은 마음씨가 필요하다. 똥 싸고 오줌 싸고 밤마다 잠도 자지 않은 채 청얼대는 아이를 꾸준히 돌볼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가진 사랑의 마음 때문이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잊지말아야 한다.

둘째, 온유한 말씨이다. 마음씨가 아무리 좋아도 말씨가 사나우면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기엔 곤란하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부드러운 말씨로 듣기 좋은 말,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여러 사람이 모일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절대 삼가야 한다.

셋째, 맵씨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맵시를 내는 것은 값비싼 것으로 치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단정하고 깨끗하고 품위있는 몸가짐으로 이왕이면 매력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넷째, 솜씨를 발휘하자. 솜씨는 부리는 사람의 정신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동일한 재료라도 사랑을 담아 질서있게, 정연하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다락방의 운영, 교회학교 교육, 찬양대원으로서의 역할에 우리가 가진 최대한의 솜씨를 발휘하자. 사랑의 향기로 가득 채우자.



▲ "성숙한 청지기가 되자"라는 주제로 1월 7일부터 15일까지 계속된 청지기수련회.

■ 청지기의 각구

"주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숙자 (집사, 4교구)

주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기를 구하옵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하려고 애쓰다 보면 내 욕심에 치우치기도 하고 주위 사람과 다들 일이 생기기도 하며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겸손함을 잃지 않게 도와 주소서.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려고 애를 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우리의 무릎에 힘을 주옵소서.

주님, 밝은 눈을 주셔서 영혼을 소성케 하는 여호와의 완전한 율법,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여호와의 확실한 증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호와의 정직한 교훈, 저희 눈을 밝히는 여호와의 순결한 계명을 날마다 보며 따르게 하소서.

■ 다락방 순례 - 압구정 · 신사 다락방(남자)

"다락방에 경사났네!"

이연숙 (집사, 4교구)

늘 모임을 같이 갖는 압구정다락방과 신사다락방에 1996년이 밝자마자 큰 경사가 생겼다. 새가족이 생긴 것이다.

몇 년만의 경사이던가. 모두들 뿔뿔이 기뻐하며 교구 담당 목사님과 함께 즉시로 심방을 갔다. 그 가정은 누구의 인도도 없이 우리교회에 찾아와 등록했는데 주일예배에 참석하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다. 성령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리라.

새가족이 생긴 것으로 인해 생기를 찾은 우리 다락방은 이 때를 놓칠 수 없어 좀처럼 모이기 힘든 남자들의 다락방 모임을 갖기로 했다. 18일 저녁으로 약속을 했는데 기다리던 새가족은 직장 사정으로 불

참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통보를 해왔다. 아쉬웠지만 기존의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리려고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 뜻밖에도 못 오셨다던 새가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별해 주셨으리라 믿으며 감사, 감사.

예배가 끝나도 약간은 어색한 공기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깨달은 말씀들을 나누는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가까와 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의미와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며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였다. 말씀과 기도, 교제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모두에게 밀려움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복된 기쁨이었던가!

"다음 남자 다락방 모임은 언제 가지게 됩니까?" 다음 모임을 기다리는 것을 헤아리는 인사로 하며 굳은 악수를 교환했다.

새가족을 통해 우리 다락방에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올해 우리 다락방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전심으로 그분만을 바라볼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역대하 16:9).

■ 김치신학세미나의 열매

불가리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지구촌 교회의 영적인 입맛을 돋우워 주려고 개최하는 김치(KIMCHI: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신학세미나. 제 1차에 초청되었던 동유럽 7개국 목회자들은 귀국하자마자 한국에서 보고 배운 교회성장의 원리들을 자국의 교회에 적용하였다.

동유럽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윽고 김치 동문을 주축으로 동유럽 전역 350명 대표자들이 체코의 칼비니아에 모여 '그리스도를 위한 새 동유럽대회(New Eastern Europe for Christ Conference)' 를 열었다.

이 대회에 주장사로 초청되었던 이종운 목사는 당시 신학교 건립 계획을 갖고 있었던 불가리아에 10,000불의 현금을 전달하였다. 김치세미나의 동문인 불가리아의 네델체프 목사는 김치세미나에서 배운 영적 지식과 그때 그 현금이 큰 힘이 되어 현재 불가리아에 신학교(BBAL: Bulgarian Biblical Academy - LOGOS)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하나님께 바친 적은 물질,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 새벽마다 드린 기도, 우리가 누리는 복을 세계의 교회들과 나누려는 노력이 하나씩 결실함을 본다. 감사하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 제 1차 김치신학세미나에 참가했던 불가리아의 니콜라이 네델체프 목사(앞줄 우측) 뒷줄엔 우리교회가 후원하는 체코의 피블로 체크 목사의 모습도 보인다. (장소: 민족촌)

■ 김동두

주간성경공부 - 방언(?)으로도

○... 제시된 진도를 따라 성경을 읽으면 올해 적어도 성경을 한 번 읽게 되는 「주간성경공부」, 그 첫번째 채집이 이루어진 지난 한 주간 교역자실은 참가한 성도의 수가 많아 즐거운 비명으로 가득했다. 교구별로 분류하고, 채집하고, 오답은 정정해주고 설명을 덧붙이고, 시상을 위해 장부에 기록한 뒤 본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일을 매주 해야 하니 번거롭다 아니 할 수 없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열심을 생각하면 교역자들은 즐겁기만 하단다. 혼자서 하다가 작심삼주(?) 될까봐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기로 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이 작은 유인물 한 장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의 매개체로 삼기로 하고 각자가 미리 공부한 뒤 다라방 모임 때마다 정답을 맞추어 보고 제출하기로 결정한 다라방도 있다. 답을 모두 영어로 작성한 성도도 있어 채집에 애를 먹기도(?) 했다고 첫 주를 놓쳤다고 아쉬워만 말고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자. 우리 주님은 늦게 와도 한 달란트 주시는 분이니까. 교역자실에 찾아 가면 지난 주 문제지도 구할 수 있다.

따로 세움받은 자들의 모임

○... 지난 16일(화) 당회원 신년하례회가 있었다. 양재동의 어느 칼국수 집에 모인 당회원 가족들은 사도행전 13장 1절 - 3절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자로, 그 중에서도 직분자로 따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며 뼈를 깎는 헌신으로 하나님 교회를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였다. 제 뒤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각오와 서로를 향한 축복으로 가득한 밤이었다.

■ 광야의 소리

민족복음화의 초석이 될 군복음화

이변생 (집사, 12교구)

군 복무 기간은 젊은이들에게 가족과 사회를 떠나 있는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이요 질서와 규율로 생활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된다. 또한 자기중심으로 꾸려오던 삶에서 나라와 민족, 이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깨달음의 기간이다. 매년 20만명의 젊은이가 군에 입대하고 또 전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군 조직이야말로 선교의 황금어장이라 할 수 있다.

일찍부터 우리교회는 육군 장교의 요람지인 육군사관학교 생도에게 매년 진중세례식을 집례해오고 있다. 생도들이 말씀으로 거듭난다면 장차 군의 간부로서 군을 지휘할 때 부하들의 심령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공동체로서 평화의 군대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증거의 소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군대 내에 군목제도가 있다는 사실이다.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면 이를 얼마든지 극대화하여 군복음화를 위한 촉발제로 삼을 수 있다.

전도의 사명은 어느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도덕과 정치질서가 회복되며, 경제발전이 의미있게 되고, 민족의 장래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군복음화는 민족복음화와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초석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에비역 장교 조찬 성경공부
 · 때 : 매주 화요일 오전 6시 30분
 · 곳 : 양재동 햇불선교센터
 · 강사 : 이종운 목사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목회자 · 교우 동정 ■

- * 이종운 목사는 26일(금) '나라를 위한 126 기도회' 에서 특강.
- * 노송성 집사(3교구)는 (주)대한항공 이사에서 상무로 진급.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각 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 되고 성숙될 수 있도록
2. 계절학교를 은혜 중에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3. 불가리아를 포함한 동유럽 교회들과 군복음화를 위하여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